

질베르투 프레이리 다시 읽기

김영철(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I. 들어가기
- II. 대립적 관점에서 본 브라질성(Brasilidade)와 페르남부쿠성
- III. 성장배경과 학문적 성향
- IV. 모더니즘과 향토주의의 경계를 넘어
- V. 과두체제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 VI. 맺음말

I. 들어가기

브라질의 정체성 논의는 포르투갈의 정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라는 권력 관계가 명확했다. 대립적 권력관계는 독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대신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로 변화되었을 뿐이었다. 주인과 노예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소수이며 주인인 백인이 권력을 장악하여 백인 중심의 정체감을 지니게 되었다. 왕정체제까지만 하더라도 권력관계의 변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변화를 시도하는 세력도 없었다. 그러나 왕정체제를 벗어버리고 공화주의를 도입하면서 더 이상 이분법적인 권력관계가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화정

* Young-Chul Kim(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PUFs, quimcarlos@daum.net), "Rethinking Gilberto Freyre".

이 브라질 사회를 휩쓴 뒤에 ‘브라질’이라고 하는 통일된 국민국가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원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브라질인’이라고 하는 단일하고 통일된 사고와 가치를 지닌 국민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브라질’을 설명할 수 있으며,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와 국민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합의할 수 있는 개념적 합의가 필요했다. 공화정이 서구유럽의 과학적 사고인 실증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아 위계질서가 준수되는 진보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브라질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제1공화정 기간 브라질의 정체성 논의를 주도했던 학자들은 과학주의와 실증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인종적·문화적 질서와 진보가 화두였으며 그 속에서 브라질 사회가 진보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종적으로는 백인이며 문화적으로 서구 문화를 수용하고 누리고 있는 사회가 되어야 했다. 자연스럽게 비백인적인 요소와 비서구적인 문화는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났다. 브라질의 원주인이었던 인디오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은 브라질 사회가 백인적이고 유럽적인 문화를 지탱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런 논의들은 모더니즘이 태동한 시기에 비판받았으나 여전히 인종적 위계질서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른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논의들의 출발점이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였다.¹⁾

1933년에 발표한 『주인과 노예(Casa Grande e Senzala)』에서 브라질의 가부장적 사회의 일상, 성적 매력, 음식, 교육과 관습 등을 다루면서 이원적인 사회구조가 어떻게 다층적이며 복합문화를 지닌 사회로 변화되는가를 브라질의 전통을 잘 보전하고 있던 페르남부쿠의 사탕수수 농장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설명했다. 식민사회에서 ‘대저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

1) 『주인과 노예』는 브라질 역사 연구의 구분점이 되고 있다. 그 외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기간 도시의 성장을 분석한 “Sobrados e Mucambos”, 제1공화정 기간 브라질의 권력관계를 다룬 “Ordem e Progresso” 등이 대표적인 연구 업적이며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겼다(Sebastião 2000, 5). 최근 신역사적인 접근 방법의 선구자로서도 평가받고 있다(Peter 1998, 1-10).

는 독립된 사회로 보고 브라질 전체가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지역에 기초하고 있어 북동부의 지협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일반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인과 노예』 뿐만 아니라 그가 이론화한 루주 트로피칼리스무(Luso-tropicalismo)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하다²⁾. 루주 트로피칼리스무는 포르투갈-열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르투갈이 열대지방에 형성한 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르투갈 중심의 인종적 혼혈과 문화적 혼종을 의미한다. 프레이리가 1950년대 이후 포르투갈 식민지를 방문한 후 개념화한 것으로 브라질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포르투갈 식민지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형식이다.

『주인과 노예』의 배경인 페르남부쿠는 식민기간 사탕수수 농장의 중심지로 식민사회에서 높은 정치경제적 지위를 누려왔으나 남동부를 중심으로 금광개발과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권력을 상실했다. 왕정체제에서는 사탕수수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페르남부쿠 엘리트들이 이전과 유사한 지위를 누렸으나 커피산업이 성장한 공화정 체제에서는 주변부로 전락했다. 이에 페르남부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찾고 문화적으로도 페르남부쿠의 문화가 브라질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페르남부쿠주의(Pernambucanismo)를 주장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도 페르남부쿠의 엘리트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인과 노예』는 향토주의인 페르남부쿠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브라질은 전근대와 근대, 전통과 현대, 다양성과 통합성, 과두제와 반과두제, 향토주의와 모더니즘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르가스파의 신국가체제가 형성된 이후 문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과격한 문화적 정체성 논쟁을 펼쳤다. 이런 점에서 『주인과 노예』는 문화전쟁을 결론지은 연구로 평가된

2) 질베르투 프레이리에 대한 평가는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데 1930-50년대까지는 독창적인 몰라토 인종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거나 높게 평가했고, 1950-70년대에는 인종과 문화적 관점에 대해 좌파로부터 비판받았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와 다원주의가 인정되면서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주장에 따르면”이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연구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David 1999, 8-9).

다. 그러나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끊임없이 북동부 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열대라는 기후적 조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브라질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보다 페르남부쿠의 정체성을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호기심은 『주인과 노예』 이전의 질베르투 프레이리를 평가하면 의도와 연구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지성사와 정체성 논쟁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브라질성과 페르남부쿠성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성장배경, 향토주의 선언과 정치적 선택을 통해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의도를 분석한다. 성장배경에서는 『주인과 노예』에 영향을 미친 학문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스승들을 통해 성향을 파악할 것이다. 향토주의 선언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전개된 모더니즘과 대비시켜 살펴봄으로써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사상적 근원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선택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서 과두제 유지와 해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어떤 입장에서 브라질 문화를 통찰하고 정의내렸는가를 재고하고, 브라질 모더니즘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대립적 관점에서 본 브라질성(Brasilidade)와 페르남부쿠성

제1공화정은 왕정주의자 vs 공화주의자, 유럽지향주의 vs 미국지향주의, 향토주의 vs 모더니즘, 유럽인(백인) vs 혼혈인(비백인), 과두제 vs 반과두제, 커피산업 vs 산업화 등의 상충적인 관계로 설명된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주인과 노예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권력 관계가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었고 당시의 ‘브라질’과 미래의 ‘브라질’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발생시켰다. 또

한 이런 변화 속에서 브라질은 선진(유럽) 사회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브라질’은 여전히 이원화되어야 하고 백인 중심의 사회를 통해 서구의 과학주의와 소통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를 위해 ‘브라질’을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럽적 문화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는 브라질이 제2의 프랑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브라질’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브라질인들이 유럽에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자각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모색이 모더니즘 운동으로 이어졌다. 브라질의 모더니즘 운동은 1922년 상파울루에 현대 예술 주간을 통해 논의가 공론화되었다. 2년 후에는 2단계 모더니즘 운동인 ‘브라질인들에 의한’, ‘브라질의 재발견’을 통해 민족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모더니즘이 표방했던 것은 유럽 지향적인 과거와의 단절, 다양한 인종적·민족적 구성에 대한 이해, 풍부한 자연 환경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통찰과 원주민 식민주의에 대한 문화적 이해였다(박원복 1999, 49). 이들은 모더니즘을 통해 유럽과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채용하고 있는 미래주의, 다다이즘, 큐비즘을 비롯한 사상적 토대가 여전히 유럽적인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브라질’이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도 유럽형의 산업사회였다. 따라서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브라질성은 유럽의 인종적·문화적 토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적 사고와 가치 기준에 따라 ‘브라질’을 형성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면 브라질 사회가 지니고 있는 권력관계가 이분법적인 구조에 기초한 위계질서가 아니라 다원적인 권력관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모더니즘 운동이 전통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헤시피성(recifensidade), 페르남부쿠성(pernambucanidade)과 북동부성(nordestinidade)이란 개념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들은 북동부의 과거에 대

한 향수, 근대화되어 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거부반응과 다 쿤냐가 분석한 내륙의 ‘오지(Os Sertões)’로 인해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북동부의 본 모습을 해안지대의 플랜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David 1999, 9-10). 또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대농장과 가부장제, 옛 문화들이 근대화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대농장 문화의 쇠락 등에 대한 우려들을 담고 있었다(David 1999, 16). 이 과정에서 정의되는 개념들은 지역성을 강조하는 북동부성, 지방성을 나타내는 페르남부쿠성 그리고 페르남부쿠 내의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헤시피성이 대두되었다. 북동부성은 열대의 자연환경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북동부성은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하면 각 주를 중심으로 하는 페르남부쿠성, 파라이바성, 알라고아성과 같이 세분화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페르남부쿠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질베르투 프레이가 개념화한 것들이다.

북동부성은 1926년의 향토주의 선언(Manifesto Regionalista)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은 국가를 통치하는 이상적인 형태로서 향토주의에 기초한 통합주의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측면, 잘못된 특성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북동부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성적·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된다(Helena 2007). 향토주의 선언에서 말하는 북동부성은 페르남부쿠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Região e Tradição³⁾’과 ‘Manifesto Regionalista’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북동부란 개념을 정의하는데 북쪽의 마라냐옹주에서 남쪽의 바이아주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페르남부쿠가 개념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동부라는 개념은 남동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성에 반대되는 전통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지역성은 포르투갈의 문화적 토양에 아프리카와 인디오의 문화가 접합된 것에서 찾고 있다. 북동부성이 지

3) 지역과 전통은 지속적인 긴장의 요소, 예술가의 초상화, 회귀적인 오르테가 추중(oreteguiano)라고 평가한다(Chacon 1994, 177).

나치게 강조되면 민족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지만 민족의 건국신화를 파괴하지 않는 대신에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어울림의 한 부분으로서의 북동부의 특수성을 강조한다(Giralda 2000, 180-181). 이러한 논의에 따라 북동부는 브라질성을 형성하는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바이아를 배제시킴으로써 페르남부쿠에 집중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1976년에 발표한 ‘Modernista de Recife’를 통해 잘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정치, 사회경제와 문화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페르남부쿠성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동부의 정치력 회복이다. 북동부는 공화정이 실시되면서 식민 초기부터 유지되어 오던 정치적 영향력을 많은 부분 상실했다. 왕정체제기간 임명된 23명의 재상 중에 19명이 이 지역에서 배출되었으나, 공화정 기간에는 에피타시우 페소아(Epitácio Pessoa)가 유일하게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부통령도 4명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스타시우 코임브라(Estácio Coimbra)도 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쳤고 전체적으로 북동부인들은 정치적인 소외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페르남부쿠성은 중앙 정치로 성장하거나 중앙 정치에서 북동부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남부지방은 먼저 브라질을 통합한 후에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향토주의는 지방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브라질 형성을 주장하여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모더니스트들과 차이를 보인다. 정치적으로 모더니스트들은 국가통합에 있어 연방주의를 주장하며 지방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향토주의도 모더니스트적인 정치운동이었으나 모더니즘운동에서 주장하는 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과두제와 온정주의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더니즘과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페르남부쿠에서 꺼져가는 사탕수수 농장 산업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남부

의 커피산업은 이미 북동부의 사탕수수 산업의 생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중앙정치에서 북동부 경제회생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해 줄 것을 주장해 경제적인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남동부 지방의 반발도 만만찮아 결국 중앙정부는 커피 경작자들에게 북동부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북동부의 경제활동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남동부와 격차가 점점 증가했다. 경제중심이 남동부로 이동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도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노예제 폐지 이후 북동부의 농촌에 머물고 있는 흑인 노동력이 남동부로 이동했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백인인구의 유입이 증가하여 도시화가 확대되고 있는 남동부는 인종 구성에서도 북동부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북동부는 여전히 몰라토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남동부에서는 백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종비율이 역전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북동부인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셋째, 남부지역에 많은 백인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정의하는 브라질 문화가 희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진행된 모더니즘 운동은 북동부를 문화적 부분에서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남동부에서 시작된 모더니즘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대칭적인 개념으로서 향토주의 운동을 주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향토주의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민족의 개념을 통해 북동부 문화의 균형잡힌 특성을 강조한다. 즉, 북동부가 정치체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브라질의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역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질적인 지역의 정체성, 사회적인 혼혈현상, 민족형성에서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했다.

문화적 측면에서 브라질성은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체성을 정의하는 많은 논의들도 브라질 문화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북동부 지역의 동질성만을 강조한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물론 다양성 속의 북동부라는 전체적이고 결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브라질성을 강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이 북동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체성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프레이리가 말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동화에 근접해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다양성은 식민기에 형성된 전통 즉 북동부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 내에서 발생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은 동질적인 특성을 형성하는 문화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민족은 다양성을 인정하여 자칫 문화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국민이 문화적으로 다양해진다는 것은 지역적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 전체의 통합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특정한 문화를 중심으로 수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브라질이 포르투갈, 아프리카와 인도에 기초한 혼혈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900년대를 전후에 브라질에 유입된 유럽이민들은 브라질의 민족 정체성을 희석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브라질 문화를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토주의 운동에서 북동부성은 연방의 행정 구분보다 지역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북동부라는 지역보다는 페르남부쿠성, 파라이바성, 알라고아성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이용되어 지방성이 강조된다⁴⁾. 길레르미 드 알메이다는 1925년 헤시피에서 개최된 학회가 모더니즘에 대한 대립적인 관점에서 향토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향토주의와 브라질성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향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브라질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평가

4) 페르남부쿠성은 마리우 세트(Mário Sette), 파라이바성은 주제 아메리쿠 드 알메이다(José Américo de Almeida), 알라고아성은 오타비우 브란다우(Otávio Brandão)으로 대표된다. (Helena 2007, 2)

했다(Simone 2006, 61). 이와 같이 초기의 향토주의는 모더니즘이 형성하고자 했던 브라질성을 회피하거나 약화시켰다.

III. 성장배경과 학문적 성향

III.1. 브라질 속의 외부인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1900년 3월 15일 페르남부쿠 주 헤시피에서 쇠락하고 있던 사탕수수 대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을 받기를 거부하고 인습을 타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는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그림공부를 시켰으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질베르투의 아버지는 영국문화를 애호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국문화를 채용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이 영어를 배우고 영국문화를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랬다⁵⁾. 그래서 그림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질베르투에게 영어교육을 시켰다. 영국인 윌리엄(E.O.Williams)이 그의 영어 교육을 맡았는데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카몽이스보다는 셰익스피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Paulo 2000, 120). 윌리엄은 이후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학문적 성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인 알프레두 프레이리(Alfredo Freyre)는 자신이 헤시피 대학의 교수임에도 질베르투를 미국 학교에 보냈다. 여기서 받은 침례교회의 교육과 청교도적인 종교적 경험은 브라질 사회를 분석하는데 남다른 시각을 형성시켰다. 침례교는 미국의 정치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으로 당시 왕정체제를 붕괴시키고 등장한 제1공화정의 논리와 가장 잘 맞았다.

5) 알프레두 프레이리의 영국 사랑과 질베르투의 영국의 영향에 대해서는 Pallares-Burke, Maria Lucia(1998)를 참조, 브라질의 영국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질베르투의 “Ingeleses no Brasil”에 (João 2000) 참조.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개신교의 교리와 의례는 가톨릭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 마찰을 빚었으며 심지어는 박해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은 기존질서와 맞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브라질 사회가 로마 가톨릭의 문화에 순응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침례교회의 개종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거셴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비교적 호의적인 환경에서 질베르투는 텐(Taine), 콩트, 스펜서를 접할 수 있었고,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의식이론에 기초하여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 빠져들었다.

그 외 브라질 사회의 근대산업시설 형성을 위해 들어와 있던 많은 영국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영국적인 시각으로 브라질 사회를 분석했다(Maria 1998, 3). 영국은 식민 본국인 포르투갈과의 외교관계를 이용하여 식민초기부터 브라질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1808년 포르투갈 왕실이 리오로 파천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브라질과의 특혜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고, 제2왕정기에는 브라질의 도시 건설,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영국인들이 브라질에 정착할 수 있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1949에 발표한 “Ingeleses no Brasil”에서 브라질 문화형성 과정에서 영국인과 영국문화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인 알프레두 프레이리가 영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것이 영국 문화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영국 문화는 식민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는 말이 된다. 특히, 영국은 무역활동을 장악하고 있어 사탕수수 생산의 거점이며 노예무역이 이루어지던 헤시피가 직접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이 식민이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헤시피가 포르투갈 문화와 아프리카 흑인 문화가 만나 형성된 전형적인 곳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국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했지만 그가 받았던 교육은 브라질적인 혹은 전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브라질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

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 유학이전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적 시각으로 브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접한 영국인들의 관점으로 본 브라질의 문화는 이국적인 현상이었으며 유럽인의 시각에 브라질인들은 인종적으로 낙후되고 문화적으로는 이국적인 매력을 지닌 곳으로 보였을 것이다.

III.2. 외국에서 본 브라질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브라질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 인종구성을 지닌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는 사실에서 브라질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또한 미국이 유럽 지향적 혹은 모방적 방법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방법을 통해 성장한 것을 보면서 브라질 또한 유럽의 문화적·사상적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지닐 수 있음을 확인했다. 초기의 문화적 인식은 브라질로 집중되지 못하고 이베로아메리카라고 하는 문화권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Baylor 대학은 프로테스탄트와 아폴로적인 미국 문화, 로마 가톨릭과 디오니서스적인 멕시코 문화가 공존하는 텍사스에 있었기 때문에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Siepierski 2000, 121).

미국의 Baylor 대학과 콜럼비아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프란츠 보아스를 만나 학문적 영역을 문학에서 사회과학, 사회학, 인류학과 역사학으로 확대했다. 프란츠의 인종과 문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국과 브라질의 인종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Jeffrey 1995, 56-57; Nova 2000, 5). 보아스는 인종적 설명 혹은 환경론적 설명을 철저히 배격하는 접근방법과 개인은 문화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는 문화결정론을 주장했는데 미국 문화와의 문화충격과 히스패닉 문화에 대한 왜소증에 시달리고 있던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문화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만의 이론을 추구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공해 주었다⁶⁾.

즉 유럽의 과학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브라질은 인종적으로는 흑인과 인디오, 기후적으로는 열대라는 환경 때문에 낙후되어 있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아스의 역사적 특수주의와 문화결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브라질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인종적 혼혈이 발생했으며, 또한 문화적으로도 혼혈 문화인 독특하고 ‘유일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이베리아 문화의 예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보아스의 개념들은 백인의 우수성이 육체적인 차이에도 나타난다는 생물학적 인종학과, 각각의 인종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백인이 가장 앞선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역사학과,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회적 다윈이즘 학파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것으로 인류학 분야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Siepierski 2000, 122). 이런 개념들은 제1공화정이 주장하는 실증주의 논리에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던 질베르투에게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었다(Nova 2000, 6). 그 외 뉴욕에서 질베르투는 아메리카에서 유럽문화의 지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멘켄(H.L. Mencken)과 경험이 우리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 조지 산타나(George Santayana)와 같은 학자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모더니즘 운동에 회의적이었던 프랑스,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향토주의자와 “과거주의자(Passadistas)” 그룹들의 작가들과 만나면서 페르남부쿠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Meucci 2006, 50) 이런 학문토대 위에 1923년 귀국 후에 농촌 엘리트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페르남부쿠의 상황을 인식했다.

6) 다르시 히베이루는 GF가 미국에서 수학하는 동안 심각한 문화충격을 받았다. 특히, 히스패닉 문화적 영향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인식하고 마치 히스패닉계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한다(Santo 2003, 92). 프레이리는 초판 서문에서 프란츠 보아스의 인종과 문화의 개념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Freyre 2003, 32).

IV. 모더니즘과 향토주의의 경계를 넘어

IV.1. 모더니즘 운동의 양면성

실증주의가 엘리트를 중심으로 파급되면서 모더니즘 논쟁은 시작되었으며 1922년에 상파울루 현대예술주간으로 모더니즘 운동의 초기 단계가 완결되었다. 현대예술주간은 문화운동으로서 브라질의 예술과 문화를 재현대화하고 브라질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민족의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었다(Oliven 1999, 413). 또한 산업화와 과학화, 이민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진 삶의 확대, 정치적 다양성 등으로 대표되는 브라질의 현대적 삶의 진보를 예술적·문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광운 1996, 184-185).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과거의 역사와 경험을 부정하거나 재해석하게 되었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현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모더니즘은 비전에 따라 미래주의와 원시주의로 구분된다. 모더니즘의 미래주의를 이끌었던 그라샤 아란냐(Graça Aranha)는 “일상의 미학(Estética da Vida)”을 통해 브라질인의 정신세계는 브라질을 형성하고 있는 세 인종이 문화적으로 만들어 낸 인공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적 인공이란 포르투갈의 우울함, 아프리카인의 유치함과 인디오의 정신세계가 결합되어 있지만 자연과 교섭하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주의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유럽적 시각의 문화적 열등성을 들어내지 않고 산업화로 새로운 브라질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영철 2003, 22-23). 반면 원시주의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오스발두 드 안드라드는 브라질이 형성한 새로운 관계는 “브라질 나무(Pau-Brasil)”와 “문화적 식인주의(Cultural Anthropophagy)”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인주의 선언(Manifesto Antropófago)”을 발표했다. 여기서 브라질 나무는 최초의 수출 상품으로서 브라질의 경제적·문화적 종속을 상징하며, 문화적 식인주의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혼합과 융화를 거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을 말한다(김영철

2003, 27). 이러한 문화적 식민주의는 1554년 포르투갈의 사르딩냐 주교가 브라질 해안에 난파되어 인디오들에게 먹힌 사건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Oliven 1999, 414). 원시주의 모더니스트들은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인디오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켰다. 이런 관점은 북동부의 문화적 가치보다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남부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북동부의 보수적 엘리트들에게는 어떤 형태이던 경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모더니즘 논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의 과학주의에서 비롯된 인종과 기후가 그 국가의 발전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환경 결정론적 접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이론가들인 실비우 호메루(Silvio Romero), 이유클리시스 다 쿤냐(Euclides da Cunha), 니나 호드리게스(Nina Rodrigues), 올리베이라 비안나(Oliveira Vianna), 아르투르 하무스(Arthur Ramos)등이 환경결정론적 입장에서 브라질의 인종과 지리적 환경, 문화를 분석했지만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은 브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인을 받아들여 브라질을 백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Oliven 1999, 414; Maestri 2007, 4). 물론 유럽인의 유입은 노예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브라질은 유럽인들의 이주를 장려했으며, 흑인과 유색인종의 이민을 제한했다. 또한 혼혈을 통해 백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혼혈인인 몰라토는 백인화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시작된 혼혈적 정체성은 백인화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1926년에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루에 등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엘리트로서 브라질 사회에 대한 외부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던 빈민층 사람들과 브라질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하는 것을 즐겼는데, 그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은 세르지우 부아르키 드 올란다(Sérgio Buarque

de Hollanda), 페드루 단타스 프루덴트스 드 모라이스 네투(Pedro Dantas Prudente de Moraes Neto), 빌라 로부스(Villa-Lobos), 루시아누 갈레트(Luciano Gallet), 파트리시우(Patricio), 동가(Donga), 피싱긴냐(Pixinguinha)등 이었다⁷⁾. 이들은 브라질 문화의 국제화보다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다. 또한 리오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식인으로서 전통과 브라질성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공통적인 관심사항은 브라질 형성과정과 사회적 특성에 대한 것으로 브라질 사회가 지니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적인 사회관계를 옹호했다. 특히, 올란다는 브라질인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규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브라질 사회를 인식했다.

모더니즘 운동은 브라질 사회가 어떻게 형성된 사회이며,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모더니스트들은 브라질은 해안지대에서 자생하는 브라질 나무에서 시작되어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근대화를 통해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포르투갈과 인디오 문화가 인디오의 주체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문화는 백인들보다 낙후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하고 백인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또한 브라질 사회의 역동성이 북동부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것이 남동부로 이동되었으며 근대화 과정을 통해 남동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은 상파울루의 구역주의(Bairrismo)에 기초한 모더니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에서는 향토주의를 수용하지 못했다(Oliven 1999, 413). 사실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리오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질 문화

7) 부아르키는 “Raízes do Brasil”를 쓴 작가로 브라질 문화의 뿌리로 백인과 인디오 문화의 혼혈을 강조한다. 프루덴트스는 프루덴트스 대통령의 손자로서 제1공화정을 옹호하는 정치인, 빌라 로부스와 갈레트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로 빌라 로부스는 브라질적인 클래식을 만든 사람, 파트리시우, 동가와 피싱긴냐는 삼바 작곡가이면서 삼바 연주자들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만남은 고급예술의 좋은 백인 가문과 대중예술의 몰라토 음악가의 만남으로 브라질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Vianna 1999, 1-2).

의 전통적 요소와 대중문화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대중문화를 통해 진정한 ‘브라질’을 찾으려 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1922년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현대예술주간의 모더니즘이 브라질 문화의 독창성을 희석시키고 유럽적인 시각을 도입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Needell, 1995, 59). 이러한 파괴적인 모더니즘으로부터 브라질의 사회·문화적인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향토주의를 주장했다⁸⁾.

IV.2. 북동부의 모더니즘 향토주의

향토주의는 지방의 사회, 인간 문제를 인식하고 재평가하여 브라질을 통합하자는 것으로서 브라질의 통합은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26년 2월 8일에서 11일까지 헤시피에서 개최된 향토주의 운동(Congresso Regionalist do Recife)은 브라질 문화를 외국의 문화와 비교하기 보다는 전통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토주의 운동은 크게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지식·예술적 생활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사회·경제적 분야에서는 1) 민·관의 힘을 모은 북동부의 경제적 단일화 2) 가정 경제, 주거와 같은 농촌 사람들을 방어하는 것 3) 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북동부의 도로문제 해소 4) 교육적 환경과 법적인 관점에서의 산림 문제 5) 미적·위생적·경제적 관점에서의 북동부 요리 전통 보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적·예술적 관점에서는 1) 초·중등학교, 지적·예술적 환경, 예술 교육, 대학 조직을 통한 북동부 문화생활의 단일화 2) 북동부의 정원과 공원, 수도의 도시화를 통해 북동부의 건

8) 1924년 4월 28일 헤시피에 유럽의 전통주의에 영향을 받아 오딜론 메스토르(Odilon Nestor)와 북동부 향토주의 센터(Centro Regionalista do Nordeste)를 설립하여 당시 헤시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인들을 결집하고 1926년 향토주의 선언을 개최했다. 『주인과 노예』 출판 5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향토주의 운동은 상파울루 중심의 모더니즘과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antista 1983, 16-18).

축하적인 특성 보전 3) 전통적인 놀이와 축제를 복원하여 역사적 유물과 예술적 자산을 보전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었다(Meucci 2006, 62-63). 향토주의는 문학부분에서 먼저 진행되었는데 북동부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지방적 특성을 살리는 문학 장르로 질베르투 프레이리도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는 향토주의는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악한 향토주의’와 로마 가톨릭과 같이 내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한 향토주의’로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향토주의 운동은 분리주의 운동이 아니라 브라질의 통합방식을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래로부터의 통합방식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Freyre 1924, 5). 그의 향토주의 선언은 기본적으로 국가조직 통합을 위한 지역의 보호와 브라질 특히 북동부의 전통과 지역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선언은 잘못된 세계주의와 거짓된 모더니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향토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모더니스트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했다(Oliven 1999, 415).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모더니즘 운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브라질의 인종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는 브라질을 혼혈과 인종적 민주주의를 형성한 유일한 열대 문명국가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프란츠 보아스의 인종과 문화 개념을 적용하여 브라질의 혼혈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라고 주장했다(Oliven 1999, 412-413). 이런 주장은 유럽의 과학주의를 따르고 있던 엘리트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주장하는 혼혈은 가부장적 권위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대저택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배엘리트들의 절대적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주장으로 인해 혁명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된다. 또한 대저택이라는 공간만을 상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인과 노예』가 브라질의 국가정체성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북동부인들만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브라질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는다(Santo 2003, 25-29). 사

실 『주인과 노예』는 식민기간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인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탕수수 경작은 1530년 마르틴 아폰수 드 소우자가 도입하여 주로 북동부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700년경에 남부지방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목축산업도 성장하여 북동부와 남부의 경제구조는 사뭇 다르게 형성되었다(Skidmore 1999, 19-20). 브라질 전체 경제주기로 볼 때는 북동부의 사탕수수 산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 전역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700년대가 되면 남동부가 브라질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하여 포르투갈 정부는 1763년에 수도를 리오로 옮긴다. 또한 페르남부쿠는 브라질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포르투갈의 지배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곳이며 무역으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다. 이런 점에서 페르남부쿠가 브라질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는 부분은 지나친 과장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가 브라질 사회와 문화 발전의 전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에 자신의 과거와 유년시절의 기억들을 잘못된 모더니즘과 세계주의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토주의 선언은 리오를 중심으로 한 부르조아의 에토스와 북동부의 생활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에토스의 양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브라질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나 자신의 과거를 보전하기 위해 향토주의를 주장했다. 모더니즘과 향토주의의 논쟁은 브라질 내에서 단일국가대 연방주의, 중앙대 지방, 단일성대 다양성, 민족 대 이민족, 대중문화 대 고급문화, 전통 대 근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후 브라질의 정체성 논의들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에 따라 진행되었다. 상파울루 모더니즘 운동이 유럽과의 문화적인 종속관계의 단절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면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그 대안적인 요소로서 브라질의 전통적 사회구조와 문화적 독자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모더니즘의 2단계를 진행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과두체제의 위기와 정치적 선택

V.1. 과두체제의 위기와 페르남부쿠

제1공화정 특히, 1920년대 정치 환경은 두 가지 수준에서 살펴야 정치권력의 변화와 그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치 수준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면 그가 직면하고 있던 정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제1공화정은 “밀크커피(Café com Leite)”로 정의되는 과두체제였다. 커피를 생산하던 상파울루와 리오, 유류와 육류를 생산하던 미나스제라이스 주 출신의 정치인들이 중앙정치를 장악했다. 밀크 커피 정치는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권력이 북동부에서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기간 브라질 정치의 중심이었던 북동부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커피경작이 빠르게 성장하고 초기 산업시설들이 이 지역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북동부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북동부 지역은 정치·경제적 위기가 누적되어 ‘카누두스(Canudos)의 난’이 발생했다. 이 반란을 배경으로 하는 다 쿤냐의 『오지들(Os Sertões)』이라는 작품에서 북동부 지역이 문명화의 대상으로 비춰지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과두체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920년대는 공화주의 체제로 인해 내재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인의 이민으로 신사상과 문물들이 유입된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다르게 말한다면 안정적인 권력관계였던 과두지배 체제의 위기가 도래했던 것이다. 특히, 과두체제에 대한 반발은 정치권력 구조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배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는 실증주의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소장 장교 운동들이 주도했다. 소장 장교들은 중산층 출신으로 군대 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세력으로 매우 개혁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소장 장교 운동은 정부의 도덕성 회복, 비밀투표, 입법부의 독립, 기초교육과 직업 훈련의 의무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권력 구조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공화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으나 과두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던 브라질 정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 운동은 1922년 리오에서 시작하여 1924년에 상파울루에서 대규모 무장투쟁으로 이어졌고 성공하진 못했지만 제1공화정을 붕괴시키는 1930년 혁명에서 주축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과두체제에서는 각주의 정치 권력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바이아, 페르남부쿠, 리오그란드두술 주가 밀크커피 정치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페르남부쿠 정치인들이 페르남부쿠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두체제의 위기는 군대의 불만, 지역간의 긴장고조, 성장한 도시인구의 불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전통적 가치와 지방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브라질 사회에 신사상적인 접근을 선택하기 보다는 과두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선택했다. 물론 과두체제 내의 변화를 주장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지만 권력구조 내의 재편을 주장함으로써 북동부의 정치적 위상강화를 내세웠다는 측면에서 그의 정치활동은 제1공화정의 과두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조했다(Needell 1995, 53).

V.2. 페르남부쿠의 정치인 질베르투 프레이리

1920년대 브라질 정치는 지방에서는 대령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고 중앙에서는 각 주의 주지사들이 권력 배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불균형은 심화되어 사탕수수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북동부는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남동부의 경제성장에 의존하게 되었다(Meucci 2006, 27). 페르남부쿠인들은 노

예제 폐지, 각 주들의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지방의 분권화를 가져온 연방제가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페르남부쿠의 대농장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브라질 주류사회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한 그도 대농장주들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로 돌아온 후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꿈은 페르남부쿠의 주지사가 되어 북동부를 다시 브라질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무대에 진입하기 위해 당시 주지사였던 사촌 매부인 이타시우 코임브라의 개인 비서로 활동했으며, 주정부가 운영하는 *A Provincia*의 편집인으로 일하면서 페르남부쿠가 식민기간 동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브라질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도 했다(Bartlewski 2000, 24-25). 코임브라는 페르남부쿠의 경쟁적인 지역 정치인들을 물리치고 정치권력을 장악했으며 중앙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에피타시우 페소아(Epítacio Pessoa: 1919-1922) 대통령 집권기에는 농업부장관을 지냈으며 아르투르 베르나르데스(Arthur Bernardes: 1922-1926) 대통령기에는 부통령을 역임했던 페르남부쿠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다. 코임브라는 페르남부쿠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여 ‘보통학교(Escola Normal)’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아버지인 알프레두 프레이리가 교장을 맡았으나 무능력과 교수 채용 과정의 부정 등의 이유로 여론의 압력을 받아 1929년에 사임했다(Meucci 2006, 38).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보통학교 운영에 대한 논쟁은 페르남부쿠주에서 개혁세력과 보수세력들간의 논쟁으로 발전했다.

당시 페르남부쿠는 과두정치 비판자들과 가톨릭 보수주의자들이 정치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연합하여 코임브라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코임브라 주정부에서 지방 엘리트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1920년대에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저작활동은 신문이었는데 그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Diário de Pernambuco*에 글을 계속 실어 페르남부쿠주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지방 신문의 편집자이며 주정부의 고위 관료는 상당

한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력을 지니고 있던 질베르투 프레이리로서는 과두체제를 붕괴시키는 남동부지방의 소장 장교 운동은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처럼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신학문을 공부한 젊은 학자로서 새로운 정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동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구체제를 옹호했다. 따라서 1930년 혁명세대들이 지방의 다양성보다는 국가 통합과 단일성을 우선시하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대중문화를 형성하려고 했으며 전통보다는 근대화 추진을 중시하면서 그와 충돌했다. 결국 1930년 혁명 이후 그는 페르남부쿠의 소장 장교 운동의 압력으로 포르투갈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포르투갈에서의 생활은 자신이 연구했던 브라질 사회와 문화의 근원을 다시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포르투갈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망명 생활에서 『주인과 노예』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켰다.

VI. 맺음말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1933년에 『주인과 노예』를 발표하면서 브라질인들의 인종적·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사회학자이자 철학자로 평가받았다. 브라질 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여과 없이 묘사함으로써 지배계층으로부터는 개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일반대중들에게는 대중문화의 가치를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주인과 노예』는 브라질 사회와 문화를 언급하는 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질베르투 프레이리나 『주인과 노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브라질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전제에서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주인과 노예』 발표 이전의 행보인 성장과정과 학문적 성향, 모더니즘과 향토주의, 과두체와 정치적 선택이라는 측면으로 개인적인 성향을 파

악하고 『주인과 노예』의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했다. 그것은 『주인과 노예』가 브라질 사회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브라질성을 추구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인과 노예』는 개인적인 연구 성과일 뿐만 아니라 브라질 지식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저서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다원주의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철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사회과학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이전 보다 훨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인과 노예』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이 분명했다. 첫째, 그는 브라질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페르남부쿠성을 주장했다. 그것은 페르남부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남동부와 대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과정이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브라질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1920년대의 사회와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브라질성보다는 페르남부쿠성과 북동부성을 강조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외부인으로 성장해 외부에서 브라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했다. 성장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 특히 포르투갈어보다는 영어를 통해 브라질 사회를 인식하는 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여행을 통해 브라질인이 지닌 인종적·문화적 후진성 극복의 필요성과 문화적 왜소증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아스의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따라서 브라질인이면서 내부적인 문제들을 외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브라질인들에게 있어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평가되는 부분일 것이다. 셋째, 북동부의 모더니즘으로 향토주의를 주장했다. 모더니즘과 향토주의 논쟁에서 모더니즘의 파괴적이고 잘못된 세계관을 비판하고 북동부의 전통과 가치를 중시하는 향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정치·경제적 힘을 잃은 북동부인들에게 사회·문화적인 중심지로서의 북동부의 가치와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사실 이런 과정도 북동부성보다는 페

르남부쿠성을 강조했다. 측면에서 어쩌면 더 협소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과두체제는 제1공화정의 정치형태일 뿐만 아니라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모델이었다. 자신이 과두체제의 수혜자였으며 또한 192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족 관계를 통해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1920년대의 브라질의 상황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 어떤 시대 상황이었건 질베르투 프레이리의 활동과 연구 성과들은 브라질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인 혁명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대신에 『주인과 노예』가 발표되기 전의 상황에서 질베르투 프레이리를 접근하면 이후 그가 채용한 개념과 정치적 활동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인종적·문화적 혼종성 인정, 흑인과 흑인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인종 민주주의의 개념, 브라질을 포함하는 포르투갈어권 문화를 나타내는 루주-트로피칼리스무와 같은 정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가 정의한 많은 개념들은 여전히 브라질 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로서 매우 가치 있는 개념들이다. 그렇지만 무비판적으로 혹은 어느 일방으로 편중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브라질 사회와 문화 전체를 오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질베르투 프레이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과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그의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rethink Gilberto Freyre in order to understand brazilian society and culture, who is a very important person

with identity disputes and intelligences in Brazil. I make a comparative study for making clear differences between pernambucanity and brazility. On the basis of this opposite standpoints, it was analyzed activities of Gilberto Freyre in 1920s. In the process of his growth, he had a outside viewpoint in inside and he also had discernment to understand brazilian society and culture. In particular he had unique standpoint in interpretation of race and culture. Further more he criticized modernism owing to destructive characters and he asserted regionalism as alternative model of modernism to affect a settlement of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Nordeste. In these points, he was not modernist to pursue the brazility but regionalist to inquire into the nordestinity as pernambucanity, bahianity and alagoanity. At the same time he supported the oligarchy system of Old Republic from the viewpoints of political elite in the region. Conventionally Freyre' families had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 in Pernambuco. For that reason, he got pleasure with highly social and intellectual position after return to home. At these points Gilberto Freyre was a pernambucanist, regionalist and conservative to defense tradition and culture of Nordest rather than a brazilist, modernist and reformist in 1920s, before the *Casa Grande e Senzala*.

Key Words: Gilberto Freyre, Brasilidade, Pernambucanidade, Modernism, Regionalism, *Casa Grande e Senzala*, Oligarchy, Brazil / 질베르투 프레이리, 브라질성, 페르남부쿠성, 모더니즘, 향토주의, 『주인과 노예』, 과두제, 브라질

논문투고일자: 2008. 01. 14

심사완료일자: 2008. 02. 10

게재확정일자: 2008. 02. 18

참고문헌

- 김영철(2003), 『브라질 문화의 흑인성 연구』, 한국외대 학위논문.
- 박원복(1999), 「브라질 현대작가들이 추구한 문화의 정체성 탐구 방향과 논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 pp. 43-59.
- 이광윤(1996), 「브라질 모더니즘 문학의 비평논쟁」, 외대논집, Vol. 14, pp. 183-201.
- 최금좌(1999), 「브라질 신화 ‘루조 트로피칼’의 창조자 질베르투 프레이리에 대한 80년대 이후의 재해석들이 브라질 사회사상사에 주는 의미」, 중남미 연구, Vol. 18, pp. 101-123.
- _____ (1999), “질베르투 프레이리: ‘인종 민주주의론’에서 ‘열대학’까지”, in 이성형, 서성철,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글방, pp. 265-286.
- Bartlewski, Sabine(2000), “Gilberto Freyre-Uma Questão de Identidade”, *Tópicos* 2, pp. 24-25.
- Burke, Peter(1998), “Elective Affinities: Gilberto Freyre and the Nouvelle Histoire”, *European Legacy*, Vol. 3, No. 4, pp. 1-10.
- Chacon, Vamireh(1994), “Gilberto Freyre: constituinte e parlamentar”, *Gilberto Freyre: discursos parlamentares*, Brasília: Câmara dos Deputados, Coordenação de Publicações.
- Cleary, David(1999), “Race, Nationalism and Social Theory in Brazil: Rethinking Gilberto Freyre”, (http://www.transcomm.ox.ac.uk/working_papers.htm. 2007. 02. 07)
- Freyre, Gilberto(1924), “Do bom e do mau regionalismo”, *Revista do Norte*, Recife, No. 2, p. 5.
- _____ (2003), 48ª Edições. *Casa Grande e Senzala*, Pernambuco: Global Editora.
- Maestri, Mário(2007), “Gilberto Freyre: da Casa Grande ao Sobrados-Gênese e Dissolução do Partiarcalismo Escravista no Brasil”, (<http://www.unisinos.br/ihu/uploads/publicacoes/edicoes/>)

- 1162403108.08pdf.pdf, 2007. 02. 10)
- Marques, Helena Maria de Barros(1998), “Manifesto Regionalista de 1926: proclamação e sagração da autorictas gilbertiana”. Monografia-Fundação Joaquim Nabuco, Recife. (<http://bvfgf.fgf.org.br/portugues/critica/teses.html>, 2007. 04. 11)
- Mendonça, João Hélio(2000), “Alguns Aspectos da Influência Britânica sobre a Vida Brasileira e Comentários em torno do Livro Ingleses no Brasil”, de *Gilberto Freyre, Anais do Seminário Internacional Nove Mundo nos Trópicos*, Recife: Fundação Gilberto Freyre.
- Meucci, Simone(2006), *Gilberto Freyre e A Sociologia no Brasil: Da Sistematização à Constituição de Campo Científico*, S.P: Unicamp.
- Needell, Jeffrey D.(1995), “Identity, Race, Gender, and Modernity in the Origins of Gilberto Freyre's Oeuvre”, *American Historical Review*, pp. 51-77.
- Nova, Sebastião Vila(2000), “O Mundo que Gilberto Freyre criou”, Ano 4, Número Especial, *Revista SymposiM*, Unicamp.
- Oliva, Terezinha Alves de, Bray, Sílvio Carlos(2001), “Manoel Bomfim e O Pensamento Geográfico Brasileiro”, in Gerari, Lucia Helena de Oliveira, Iandara Alves Mendes(orgs.), *Teoria, Técnicas, Espaços e Atividades: Temas de Geografia Contemporânea*, Rio Claro: Programa de Pós-Graduação em Geografia UNESP/ Associação de Geografia Teórica AGETEO.
- Oliven, Ruben George(1999), “Brasil, Uma Modernidade Tropical”, *Etnográfica*, Vol. 3, No. 2, pp. 409-427.
- Pallares-Burke, Maria Lucia(1998), “Gilberto Freyre and England: A Love Story”, *European Legacy*, Vol. 3, Issue 4.
- Rivas, Lêda(1997), “O Anarquista de Apipucos”, *Parceiros do tempo*, Recife, Universitária, pp. 179-191.

- Santista(1983), “Gilberto Freyre: um menino aos 83 anos”. *Santista*. Vol. 1, No. 2, pp. 16-18.
- Santo, Luiz Antonio de Castro(2003), *O Pensamento Social no Brasil*, São Paulo: Edicamp.
- Seyferth, Giralda(2000), “O Regionalismo da Tradição na Perspectiva Nacionalista: a Identidade Regional Segundo Gilberto Freyre”, *Anais do Semiário Internacional Nove Mundo nos Trópicos*, Recife: Fundação Gilberto Freyre.
- Siepierski, Paulo Donizéti(2000), “Algumas Influências na Formação Intelectual de Gilberto Freyre”, *Anais do Semiário Internacional Nove Mundo nos Trópicos*, Recife: Fundação Gilberto Freyre.
- Skidmore, Thomas E,(1994), *O Brasil Visto de Fora*, São Paulo: Paz E Terra.
- _____ (1999), *Brazil: Five Centuries of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ianna, Hermano(1999), *The Mystery of Samba: Popular Music and National Identity in Brazil*, North Carolina: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